

이세보 애정시조의 성격과 의미

윤 정 화*

차 례

- | | |
|---------------------|------------------|
| I. 머리말 | IV. 사대부 애정시조의 향방 |
| II. 애정시조의 창작배경 | V. 맺음말 |
| III. 이별과 相思의 함축적 의미 | |

I. 머 리 말

시조집 『풍아』의 작가 이세보(1832-1895)는 458수의 작품을 남김으로써 시조문학사상 가장 많은 시조를 창작한 작가로 알려져 있다.¹⁾ 또한 그의 작품은 압도적인 작품 편수뿐 아니라 주제면에서도 다양한 양상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사상, 생활 감정 등을 온전히 시조 양식으로 표출해 냈던 것으로 보인다.²⁾ 이처럼 이세보의 시조 문학은 19세기 말엽까지 사대부가 시조를 적극 향유했으며, 평시조가 담을 수 있는 내용의 폭을 크게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그 가치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1) 진동혁, 『李世輔時調研究』(집문당, 1983) p.17.

2) 이세보 시조의 주제는 애정류 104수, 기행 및 유람 풍류 74수, 현실비판류 63수, 유배 생활 49수, 유교 이념 단상 44수, 강호은일 34수, 초한전 소재 30수, 농사 절기요 29수, 연군 18수, 사친 10수, 탄로 2수, 무정광음 2수, 친척 상봉 1수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이동연, 「19세기 시조의 변모양상」(이화여대 박사논문, 1994) p.124.

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이세보 작품 중에서도 104수의 애정시조는 내용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것은 이세보가 왕실의 일원이면서 한말까지 높은 벼슬을 지냈던 그의 신분을 고려할 때 더욱 특기할 만한 현상이라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그의 애정시조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애정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보다 임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상사의 정염과 이별을 못내 아쉬워하는 사랑의 恨을 읊은 것으로 파악하거나,³⁾ 슬픔의 과잉과 노출 등의 시적 정조나 그 표현 방식이 19세기 통속적 대중 시조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다루기도 했다.⁴⁾ 또한 체험을 토대로 시적인 상상의 세계 속에서 허구적으로 창작한 ‘애정시조 만들기’로 규정⁵⁾ 함으로써 이세보의 애정시조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논의로는 이세보가 애정시조를 창작한 배경이나 그 속에서 표출하고자 했던 의미나 지향을 밝히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세보의 애정시조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9세기 왕족 출신의 사대부 작가인 이세보가 왜 그토록 많은 애정시조를 창작했는가 하는 점에 보다 천착할 필요가 있다. 당대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애정’은 사대부 작가에게는 여전히 금기시되던 주제였고, 실제로 그를 제외하고는 본격적으로 애정시조를 창작한 사대부 작가는 별로 없었던 것이다.⁶⁾ 즉 이세보 이전에는 거의 창작되지 않은 애정시조가 이 시기 그에게 와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된 배경을 밝혀 낼 때 그의 애정시조 전반에 걸친 의문점이 보다 쉽게 풀릴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차적으로 이세보가 사대부의 일원으로 시조집 편찬이나 애정시조를 창작하게 된 배경 및 작가의 의식세계를 통해 그의 애정 시조의 상당한 부분이 ‘연군’을 염두에 두고 창작된 것임을 밝히고,⁷⁾ 이러한 맥락하에

3) 진동혁, 앞의 책 p.228.

4) 고미숙, 「19세기 시조의 전개 양상과 그 작품세계 연구」(고려대 박사논문, 1993) p.234.

5) 박노준, 「李世輔의 愛情時調의 特質과 그 詩歌史的 位相」(『어문논집 33』, 고려대 국어국문학 연구회, 1994) p. 254.

6) 고시조에서 애정시조를 창작한 사대부 작가는 19명, 작품수는 145수에 이른다. 하지만 여기서 이세보를 제외하면 작가 18명에 41수의 작품에 불과하다. 전재강, 「고시조에서의 애정문제(Ⅰ)」(『문학과 언어』제11집, 1990), p.207. 각주9) 참조

서 작품 속에 중점적으로 형상화 된 이별과 상사의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전대의 사대부 애정시조가 이세보에 와서 어떤 양상으로 전승·변모되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애정시조의 창작배경

19세기는 정조의 죽음(1800)과 신유환국(1801)이라는 피의 박해로 서두를 장식하는데, 이것은 노론 일당 독재의 출발이면서 천주교로 대표되는 서구 사상과의 치열한 이념투쟁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로써 19세기 조선왕조는 세도정권, 대원군 집정, 민씨 척족의 전횡 등 격동의 시대로 치닫게 된다. 이 가운데 '세도정권'은 19세기 국왕의 권위와 실력이 거의 유명무실해지면서 봉당의 이념적 지주인 山林과,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 국왕 외척의 정치적 역할이 점점 강화되면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산림과 외척은 거의 무제한적인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조선 왕조의 체제와 국정을 유지해 온 기본 이념들은 무너지게 되었다.⁸⁾

특히 철종대의 세도가는 金興根·金左根·金汶根으로, 이들은 실무관료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정국을 이끌다가 위기상황을 맞으면 방패막이로 실무관료급을 내세우고 자신들은 물러서는 전대의 어느 세도정권보다 더욱 독점적이면서도 파행적으로 정국을 운영했다. 즉 중요 관직은 안동김씨 일문이 거의 독점하면서 그 세도를 과시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⁹⁾

이세보는 세도정치가 가장 극심하면서도 파행적으로 치닫던 철종대에 관직에 오르게 된다. 그는 20세에 경평군에 봉작되면서 26세(1857, 철종 8년) 10월에는 '冬至謝恩正使'가 되어 청에 다녀오는 등 관직생활의 화려한 출발을 보인다.¹⁰⁾

7) 물론 이세보의 애정시조를 모두 '연군'과 관련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의 애정시조 가운데는 기생을 비롯한 여인과의 애정을 다룬 일련의 작품들도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여인과의 체험을 통한 애정시조의 창작은 비교적 심도 있게 다루어졌지만, '연군'과의 관련성은 깊이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8) 홍순민, 「19세기 전반 정치사의 내용과 성격」, 『조선정치사(하)』, 청년사, 1990) pp.747-748.

9) 박광용, 「19세기 전반의 정치운영」, 앞의 책, p. 697.

10) 조선왕조실록 CD-ROM 제3집, 《철종 009 08/10/28(을해)/사폐한 세 사신을

- (1) 스절을 밧즈와 증원의 과세하니
미성이 동동하야 복궐를 스모로다
뉘라셔 너 형상 그러다가 임제신대. <풍아 10>
- (2) 달밤의 저름 짓고 고원을 생각하니
쥬원모즈하야 타국의 손이로다
뉘라셔 일봉상서를 북당의 전철손가. <풍아 11>

위 작품들은 모두 이세보가 동지사은정사가 되어 청에 다녀온 것을 읊은 기행시조이다. 시조 (1)은 동지사의 명령을 받아 중국에서 해를 넘기게 되자 한양의 철종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작품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작품(2) 역시 중국 여행 중에 고향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읊은 것이다. 여기서 '쥬원모즈(周爰謀咨)'는 '周爰咨謀'의 오기로 '널리 널리 살펴서 일을 꾸민다'는 뜻으로 그가 동지사로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는 26세의 젊은 나이에 과거에 오르는 것과 비길 만한 중국 여행의 기회를 맞았고, 그 중에서도 30명의 사절단을 포함한 4-5백명의 수행원의 대표가 되었던 것이다.¹¹⁾ 이것은 그에게 대단한 자부심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중국 체험 시조를 시조집의 첫머리에 실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 기행 등 정계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무렵 이세보는 당시 권력의 핵심세력인 안동김씨 일파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가 철종 시대에 종친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던 인물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권력층의 음모와 탄압으로 3년간 남해의 '薪智島'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 경위를 살펴 보면 당시 안동김씨측의 막강한 세력과 그 횡포를 알 수 있다.¹²⁾ 1860년(철종 11년) 3월에 실시한 庭試에 이세보의 아우 世翊이 뽑히자 철종은 세익에

소견하다》여차(譽次)에서 세 사신(使臣)을 소견(召見)하였으니, 【정사(正使) 정평군(慶平君) 이호(李皓)·부사(副使) 임백수(任百秀)·서장관(書狀官) 김창수(金昌秀)이다.】 사폐(辭陞)했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이르기를, “청나라의 인심과 농사의 형편 및 도둑떼들의 동정을 상세하게 탐지하고, 우리나라의 연로(沿路) 여러 곳의 인심과 농사의 형편도 역시 상세하게 탐지하여 오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11) 소재영·김태준 편, 『旅行과 體驗의 文學-중국편』(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p.11. p.13.

12) 이세보의 유배경위에 관해서는 진동혁, 『이세보시조연구』, pp.54-82와 金鱗九, 「이세보론」(『고시조작가론』, 백산출판사, 1986), pp.365-366의 내용을 참조.

게 ‘翰林’을 제수했다. 이에 대해 안동김씨 일파들은 이세보와 철종이 매우 친밀한 사이인 것을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고, 이세보는 당시 안동김씨의 핵심인물인 김좌근과 김문근의 횡포를 들추어 비난했던 것이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안동김씨측은 그들의 세력을 총동원하여 이세보의 탄핵을 상소하고, 철종은 ‘門黜之典’에 처하는 가벼운 벌을 내리고자 했으나,¹³⁾ 사헌부·사간원 등이 연합하여 철종에게 압력을 가해, 결국 유배를 허락하고 말았던 것이다.¹⁴⁾ 여기서 볼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이세보를 축출하기 위해 안동김씨측이 만든 음모였으며, 이것을 국왕인 철종의 힘으로도 이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먼저 이세보를 억울하게 궁지로 몰아 넣고, 그가 반격을 가해 오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제거하는 데 힘썼던 것이다.¹⁵⁾

(3) 너나을 헤여 보니 명년이 삼십이라
 슈구여병 웨모르고 천너지적 무삼일고
 아마도 충언이 역이나 이어헉인가. <풍아 179>

(4) 등잔불은 어둑어둑 장마비는 주룩주룩
 병든 몸 홀노 누어 썩기느니 모괴로다
 지금의 각장 장판 다 어되 간고. <풍아 211>

작품(3)는 자신이 유배를 오게 된 동기에 대해 읊고 있는데, 자신이 천리나 되

13) 조선왕조실록 CD-ROM 제3집, 《철종 012 11/11/02(신묘) / 대사헌 서대순이 상소하여 경평군 이호를 논척하다》 대사헌 서대순(徐戴淳)이 상소하여 경평군(慶平君) 이호(李皓)를 논척하니, 비답하기를, “마땅히 처분(處分)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경평군(慶平君) 호는 언어(言語)를 조심하지 않아 해방(駭妄)함이 지극하니, 문출(門黜)의 형전을 시행토록 하다.”

14) 조선왕조실록 CD-ROM 제3집, 《철종 012 11/11/04(계사) / 시·원임 대신이 연차하여 이호를 절도에 위리 안치할 것을 청하다》 시임(時任)·원임(原任) 대신(大臣)이 연차(聯符) 【영부사(領府事) 정원용(鄭元容), 판부사(判府事) 박희수(朴晦壽)·김흥근(金興根), 좌의정(左議政) 조두순(趙斗淳)이다.】 하여, 이호(李皓)를 빨리 절도(絶島)에 천위(畛圍)하는 율(律)에 의거 시행하고, 인하여 종정(宗正)에게 명하여 그 속적(屬籍)을 끊어버리게 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날마다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되니, 지극히 놀랍다. 노성(老成)한 이들의 말이 어찌 까닭없이 그렇게 하겠는가? 이와 같은 패류(悖類)는 근종(近宗)의 반열에 둘 수 없이니, 청한 대로 윤택한다.” 하였다.

15) 이세보를 귀양 보내기 위해 안동김씨측은 무려 15차례에 걸쳐 上訴와 啓를 올렸다.

는 귀양살이에 오른 것은 ‘수구여병(守口如瓶)’이란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충언’을 참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귀양살이는 서론도 채 안되는 나이에 겪어야 할 모진 시련이지만 ‘忠言이 逆耳나 利於行’이라 함으로써 자신의 결백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시조(4)은 유배지에서 겪어야 하는 시련 중 여름철 모기의 극성을 읊고 있다. 장마비는 주룩주룩 내리는데 병든 몸으로 홀로 누워 모기에 시달리는 고통도 비참하지만, 특히 ‘지금의 각장 장관은 어찌 간고’라는 종장의 구절을 통해 당시 그가 거쳐하던 방이 장관조차 없는 ‘흙방’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늦선 외판심 ‘신지도’에서의 고달픈 생활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특히 그는 이 기간 중에 부친을 여의는 슬픔을 겪기도 하고, 억울한 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등 남달리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던 것이다.¹⁶⁾ 이처럼 정치적 시련기의 좌절과 외로움 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세보는 시조를 창작하고 이를 시조집『풍아』로 엮어 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세지임술지계추호한(歲在壬戌之季秋下瀾)의 신지도복스중스년적각(薪智島鵬舍中四年 謫客)으로 年復年月復月(년부년월부월)의 병근(病根)은 날노 더하고 슈회(愁懷)난 만 단(萬端)하여 세월(歲月)을 잊고져 흑글도 읽으며 시위(詩句)도 지으며 소설(小說)도 보다가 쏘 노리를 지어 기록(記錄)하나 장단고저(長短高低)를 분명(分明)이 찾지 못하였스니 보단 스롭이 짐작하여 불가호노라.” <『풍아(大)』>¹⁷⁾

② “태평 성화 시절에 홀연히 진주로부터 民擾가 일어났고, 또 호남이 가장 시끄러워서 심한 경우는 도끼를 가지기도 해서 관리에게 명하여 이들을 묶어 놓고 두들기도록 하고 境外에 버리도록 하니 그 해가 殊島에까지 미쳐서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累臣은 또한 난감하였다”¹⁸⁾

①의 발문에서 그는 ‘薪智島’ 유배시절에 더해가는 신병을 잊고 수심을 달래기 위해 글을 읽고 시구를 짓고, 소설도 읽는 가운데, 노력 즉 시조를 함께 지었음을 밝히고 있다. ‘장단고저’를 분명히 찾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이 음악에

16) 이세보의 유배지에서의 생활은 『薪智島日錄』(『이세보시조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5)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17) 앞의 책, p.140.

18) 泰平聖化之中 忽自晉州民擾始起 又外湖南最極 甚至有持鉞 命吏縛之打之 畀棄境外 其害燬及殊島 平生不減累臣 亦此難堪矣. 앞의 책, p.146.

대한 조예가 깊지 못함을 염두에 둔 겸양의 표현으로 “보난 스름이 짐작하여” 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이세보가 시조집에서 음악적 완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시적인 정서 표현에 보다 중점을 두어 엮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②는『풍아』의 편찬시기를 살필 수 있는 자료로, 여기서 진주로부터 일어난 ‘民擾’는 ‘임술 민란’으로도 불리는데, 1862년(철종13년) 2월 세도정권에 반대하여 진주에서 처음으로 폭발하여 전국 각지의 주요 고을로 퍼져 나갔던 대표적인 민란이다.¹⁹⁾ 따라서 ①의 ‘壬戌’년은 ‘진주민요’가 발생했던 1862년과 같은 해로 추정되며 이 시기는 이세보의 유배시절에 해당된다고 하겠다.²⁰⁾

이상과 같이 시조집 발문의 기록을 통해 볼 때 이세보는 유배생활 중의 근심과 회포를 달래기 위해 시조를 창작했으며 이것을 취합하여 1862년에『풍아』를 완성했음을 알 수 있다.²¹⁾ 이렇게 볼 때 그의 애정시조도 1862년 이전에 창작되었으며 그 대부분은 유배시절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세보의 유배경위와 신지도에서의 생활, 시조집의 편찬 의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는 유배지에서 상당한 고통과 좌절을 겪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같은 정치적 시련 속에서 그에게는 과거의 화려한 정계활동이나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었던 철종의 사랑이 무엇보다 간절히 그리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실의 처지가 답답할수록 정계에 다시 복귀하고자 한 열망도 절실했을 것이며 그런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구원자는 당시로서는 철종밖에 없었다고 할 때, 그의 애정시조는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을 노래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면 이세보가 연군의 감정을 직접 토로하지 않고 애정시조를 통해 표출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먼저 이별한 입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입장과 군주를 그리워하는 신하의 입장은 상통할 수 있는 것으로 시가사에서 하나의 문학적 관습(literary convention)으로 굳어져 있었다.²²⁾ 연군의 시조에서 작가가

19) 강만길, 『고쳐쓴 한국근대사』 (창작과비평사, 1994), pp.50-53.

20) 진동혁 저, 『주석 이세보시조집』, p.13.

21) 물론 해배 이후에도 이세보는 시조를 창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세보의 연보를 통해 볼 때 석방이 된 이후에는 관직생활로 매우 분주했으며, 조선조 사대부들이 국문시가를 유배지에서 주로 창작했던 것을 볼 때, 그의 대부분의 작품이 유배기간에 쓰여진 것이 아닐까 한다.

22) 이상섭, ‘연가로서의 시조 : 하나의 정신사’ (『동방학지』13집, 연세대동방학연구소, 1972), p. 199.

남녀의 애정관계를 군신관계에 빗대어 표현할 수 있고, 연모·상사의 시조에서는 군신관계를 빌어 애정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남녀간의 애정과 연군은 서로 넘나들 수 있는 성향을 내포함으로써 뚜렷이 구별되지 않고 시가 문학사에서 지속적으로 형상화 되었기 때문에 이세보의 경우도 기존의 관습을 차용하여 애정으로써 연군을 표현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세보는 관직생활 중에 기생·악공들과 유람과 풍류를 자주 즐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길리 전유지경으로 지나가니 이 곳은 풍피고읍이요 가친이 통판을 지녀
여 계시고 나도 또한 칠팔년 스이에 왕니호든 곳이라. 승금정과 한벽당이
문득 풍류 마당을 년년이 지엿 쓰미 비록 여염부넨지라도 년졸론 다 알더
라. 만일 이 길노 아니 지니면 한 번 또 유상 호미 무방호되 몸이 되인이
되었는지라 엇지 감히 다른 데 마음을 두리요.”²³⁾

이 인용문은 이세보가 유배지인 신지도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전주시방을 지날 때의 감회를 서술한 대목이다. 이곳은 가친이 通判을 지내면서 계시던 곳으로²⁴⁾ 자신 또한 풍류를 즐기기 위해 7, 8년 사이에 자주 왕래했던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는 그 일대에 명성을 떨치던 풍류남자로 기생은 물론 여염의 부녀들까지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유배길이 아니면 한 차례 풍류의 장을 마련해도 무방하다고 함으로써 유흥에 대한 미련을 토로하고 있다. 이것은 화려했던 과거시절에 대한 미화로 다소의 과장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는 당시 서울은 물론 지방에까지 내려와 풍류와 유흥을 즐겼던 것이다.²⁵⁾ 기생·악공들이 어우러진 놀이마당에서는 ‘애장’과 관련된 노래

23) <신도일록>, 진동혁 著 『주석 이세보시조집』(정음사, 1985), pp.253-254.

24) 이세보의 부친 李端和(1812-1860)는 이세보가 경평군의 작호를 받은 그 이듬해부터 관직에 진출했는데, 1853년 全州鎭管金溝兵馬節制都尉를 맡고, 1855년 全州府判官이 되었다. 1860년에는 淳昌郡守가 되면서 南原鎭管淳昌兵馬同僉節制使를 겸임하는 등 전주, 순창을 비롯한 전라도 일대에서 관직생활을 많이 했으며 이세보가 부친을 만나기 위해 자주 내려왔던 것으로 보인다.

25) 실재 그의 유람·유흥의 읍은 작품에 전주를 비롯한 전라도 지방의 풍류처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현남바위(순창: 69), 디습동(순창: 70), 아미산(순창: 72), 귀터정(순창: 73), 송광스(전남 승주군: 76), 옥천슈(순천: 78), 물넘적벽(전남 화순군: 86) 승금지(전주: 234) 등이 장소가 등장하고 있다.

가 자연스럽게 불러졌을 것이다.²⁶⁾ 이세보가 이러한 상황에서 애정시조를 직접 창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풍류현장에서 애정시조를 많이 접했을 것이며, 이것은 뒤에 이세보가 애정시조를 창작할 수 있었던 문학적 잠재력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세보의 애정시조가 시조창의 형식을 따라 종장의 4음보를 생략한 것이라든지, 전체적인 작품의 경향이 당대의 통속적·낭만적인 정조를 떠면서 표현기법에서 참신성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은 그가 당대의 기생·악공들과 교유하면서 당대의 문학적 경향을 체득했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세보는 자신이 비록 왕족 출신으로 철종의 총애를 받았더라도 당대의 정치상황 속에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는 다소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종의 승하 후 왕족 중 가장 기개가 있었던 李夏鎰이 안동김씨의 미움을 받아 제주도로 유배를 가서 결국 사약을 받았던 당시의 사정을 미루어 볼 때 그 역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²⁷⁾ 이처럼 집권세력의 음모와 계책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정치판도 속에서 이세보는 연군을 직접 토로하기보다는 '애정'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비유적으로 나타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이세보의 애정시조는 안동김씨의 질서와 음모로 인해 유배라는 시련과 좌절을 겪는 가운데 산출된 것으로 다분히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세보의 애정시조는 당대의 권력구조와 그 속에서 겪었던 정치적 시련과 관련지어 고찰할 때 그 성격과 의미를 명확히 짚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6) 19세기 가집들의 작품경향은 '남녀 애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신경숙, 「19세기 여창가곡의 작품세계」,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p.119.

27) 헌종이 후사가 없이 승하하자 왕족 중 가장 기개가 있던 李夏鎰이 1849년에 그 물망에 올랐으나 안동김씨 일파의 미움을 받아 숙청되고, 대원군이 된 이하응은 그들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처럼 처신했던 것이다. 진동혁, 앞의 책, pp.54-55.

Ⅲ. 이별과 相思의 함축적 의미

이세보의 애정시조는 방대한 작품수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나 표현 기법의 측면에서 다양하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그의 애정시조는 사랑의 성취나 거기서 오는 희열 등을 담은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많은 작품이 이별과 그에서 수반되는 상사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토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⁸⁾ 여기서는 앞장에서 고찰한 애정시조의 창작 배경을 바탕으로 그의 작품에 형상화된 이별과 상사의 의미를 밝혀 보고자 한다.

앞장에서 이세보의 시조집 『풍아』가 유배시절에 제작된 것이고 그 유배경위를 고려해 볼 때 그의 애정시조를 임금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변함없는 충성을 읊은 연군류의 작품으로 추정해 보았다. 여기서는 유배시조와 유배지의 생활을 담은 <薪島日錄> 등의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이세보 애정시조를 연군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 (5) 임이 나를 앓기시뵈 나도 임을 공경터니
은혜로 못다갚고 나망의 결녇도다
언제나 인간의 어즈러운 말리 적어. <풍아 164>

- ③ 무단히 축취하미 이 무슨 말인고. 되가 묘정의 계관하미 나망의 결녇
또다. 호천당국 하신 지우헌 은혜 특별이 한 목숨을 꾸이스 바다 가으
세 보너섯또다.²⁹⁾

28) 진동혁은 이세보 애정시조 103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애정'과 관련된 작품에 상사(22수), 愛難(9수), 待消息(5수), 現夢(5수), 嘆無情(5수), 换位比喩(5수), 羨花蝶(4수), 路柳牆花(4수), 難愛約(4수), 待人難(3수), 輕薄愛警戒(2수), 老境愛(2수), 기타(6수) 등이 있고, '이별'에 관련된 것으로 嘆離別(15수), 離別防止(4수), 羨鳥(2수), 嘆青春離別(2수), 緣分·離別(2수), 離別·相逢(2수) 등이 있다고 한다. 진동혁, 앞의 책, pp. 197-227. 여기서 '애정시조' 중에서 待消息(5수), 現夢(5수), 嘆無情(5수), 待人難(3수) 등은 상사로, '이별시조'의 하위분류를 모두 이별을 읊은 것으로 묶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세보 애정시조 가운데 상사(40수)와 이별(27수)을 다룬 작품은 모두 67수에 달한다.

29) <신도일록> 『주석 이세보시조집』(정음사, 1985) pp. 264-5. 이 외에도 다음의 기록에서도 조정의 미움을 받아 유배를 오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있다. “가천이 너 손을 잡으시고 더칙하여 가로스더 너 어렸쑤 씨로부터 충효 두 글썽로써 가 르쳐 하여금 평생을 잊지 말나 하엿저니 뜻 아닌 오늘날 성상의 지우하신 은혜

앞의 시조작품은 '신지도'에서 암담한 생활을 형상화한 유배시조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임'은 철종이라 할 수 있다. 이세보와 철종은 서로 아끼고 공경하는 친밀한 사이였지만 '羅網' 즉 함정에 빠져 고단한 신세가 된 사연을 읊고 있다. 나망에 걸렸다는 것은 ③의 <신도일록>에서 알 수 있는데, 그의 죄가 당시 조정에 관련되었다는 것은 이세보가 안동김씨측의 미움을 받아 그들의 음모에 빠진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세보의 죄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안동김씨 일파의 횡포를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것이다. 이세보 자신은 흥분하여 실수한 말이 빌미가 되어 관직을 삭탈당하고 유배를 오게 되었기 때문에 '나망'에 걸렸다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 ④ 노력 한 곡조를 지어 가로되 “멀니 별니흥미여 셔로 생각하기를 괴로이호니 사랑하고 보지 못호니 가이 엇지호리요. 미인을 호날 한가의 바라보니 홀노 황혼을 의지호여 눈물리 물결 갓도다. 슬픈 노력 한 곡조의 창즈가 아홉번 도라오니 오나라 뵈와 좃나 라 물리 눈압헤 만엇소다. … ”³⁰⁾

이 부분은 유배지에서 질병, 고독, 근심 중에 느끼는 회포를 억제하지 못해 지어부른 노래이다. 조선조 사대부들이 임금을 우리말로로는 '임', 한문으로는 '미인'으로 불렀다고 할때, 여기서의 미인 역시 철종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라 하겠다. 오나라의 산과 초나라의 물이 많았다는 표현은 오와 초는 중국 남경에서 가장 먼 곳이었기 때문에 작가가 유배된 신지도 역시 멀고 험난한 곳임을 철종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앞의 시조의 임과 여기서의 미인 등 이세보는 유배지에서 철종에 대한 연군이나 하소연 등을 연정의 형식을 빌어 표현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유배류의 작품들은 애정의 읊은 작품들에 확대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 ⑤ 경평을 봉작호시미 동반의 참예호고 상방의 제거되미 도의를 맛엇소다. … 늙흔 초헌과 살쨍 말의 빅옥가를 울니며 삭인 던과 빗난 집의

를 감히 잇고 부모의 웅망호는 정을 생각지 아니호여 도정의 미움을 보고 가문의 붕그러움을 끼치니 엇지 불충호며 불효한 되를 면호리요.” 같은책, pp.254-255.
30) <신도일록>, 앞의 책, p.271.

황금차를 기우리니 즈리의 가득한 스우들과 문의며 안빈지덕리 다 이르되 친하다 하고 닛투와 추수한다.³¹⁾

- ⑥ 침하 압혜 썩썩이 형극을 에우고 울틈으로 문을 니고 문 우의 적은 군영 하나를 니 엿쓰니 계우 한 스발 음식을 통하여 출입하게 하밀니라. 인하여 즈물수로 굿게 즈무니 그 효상은 더욱 참아 억제하기 어렵다.³²⁾

- ⑦ 밤으로 날를 잊고 날노 밤을 이으미 풍상을 포씩하고 천신만고를 우는구나. 익익이 통곡하고 천만번이나 비나이다. 턴의 감동하사 특별이 불상한 걸 드리오시고 곳 고신으로 하여금 빙성을 달게 짓고져 하나이다.³³⁾

⑤는 '신지도'로 가는 배 위의 장면인데, 한 손[客]을 설정하여 그와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화려했던 관직생활을 은근히 자랑하고 있다. 객의 대화에서 당시 이세보의 영화와 부귀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재물이 쌓이고 사우와 빈객들이 앞을 다투어 세도있는 이세보의 집을 분주히 드나들었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⑥부분은 이세보가 배소에서 거하는 집의 삼엄한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처마밑으로부터 형극을 에워싸고 울틈으로 작은 문 하나만을 내어 음식을 출입하게 하는 비참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⑦대목은 이세보 자신은 유배지에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통곡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하늘이 감동하여 석방이 된다면 아무 욕심없이 한가한 백성의 처지라도 달게 여기고 만족하면서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여러 대목에서 살필 수 있듯이 그는 유배를 오기 전에는 상당한 권세를 누렸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대조적으로 유배지에서는 처참한 여건 속에서 생활해야 했는데, 그는 이런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눈물과 탄식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³⁴⁾

31) <신도일록>, 앞의 책, p.263.

32) 앞의 책, p.267.

33) 앞의 책, p.272.

34) 다음의 시조에서는 유배지에서의 생활이 '지옥'에 비길 만큼 고통스러운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스라 약현 말리 죽어 지옥이라드니/죽지 안는 이 고상이 스라서 더 어렵다/아마도 충효득되는 이러한가. <풍아 197>

유배지에서서의 기록이라 다소의 과장있을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이세보는 철종의 종친으로 막강한 세력을 누렸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유배지에서 이세보가 겪은 고통과 좌절감은 유배라는 임금의 '특별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유배전의 화려했던 생활이 그리웠을 것이고, 철종에 대한 연군지정이나 해배에 대한 소망이 무엇보다 간절했을 것으로 보인다.

- (6) 화촉동방 만난 연분 의 아니면 미덥스며
 뚝는 허 지는 남의 정 아니면 질겨슬가
 엇지타 한 허물노 이다지 설계. <풍아 128>

- (7) 너 평상 원하기를 금의옥식 다 마다고
 속 아는 임을 뚝초 이별 업시 스지씨니
 엇지타 인정이 실슈하여 이 토심을. <풍아 133>

작품(6)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한가지 허물로 인해 이별을 맞아야 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읊고 있다. 즉 작은 실수로 인해 임과의 믿음과 행복했던 순간들을 송두리째 잃어야 했던 서러움을 형상화한 것이라 하겠다. 작품(7)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화자는 '錦衣玉食'과 같이 호화로운 생활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임을 좇아 이별없이 살기를 소망했지만, 느닷없이 찾아온 이별에 직면하여 당황하고 한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화자가 평생동안 믿고 있던 신념과 소망이 작은 실수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지는 순간의 허탈감을 그려 놓고 있다. 이 작품들은 이별의 상황에 직면한 여인의 하소연이라기보다는 철종을 염두에 두고 창작한 작품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 같다. 이세보 자신은 철종의 곁에서 변함없이 모시기를 원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한 말로 인한 허물이 이별이라는 심각한 파장을 불러오게 한 것이라 하겠다. 이 때의 허물은 앞서 살핀 것처럼 안동김씨측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들은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임금의 은총을 다시 한 번 입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기서 작가는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보다 절박하게 표현하기 위해 여성화자를 빌어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조선조 군신관계가 한

남자를 중심으로 처첩들이 존재했던 당대의 '비정상적인 결혼관계'와 흡사하기 때문에, 임금의 다른 신하에게로 정을 옮기면 신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런 관계를 보다 적절히 표현하기 위해 당대 사대부들은 자신들을 임금의 천첩으로 낮추기를 자처했던 것이다.³⁵⁾ 따라서 작가는 작품에서 임에 대한 일방적인 순응의 자세를 취함으로써 임금의 마음을 돌려 보려는 정치적 목적을 문학에 이용했던 것이다.

- (8) 타든 말 머무르고 손잡고 다시 안저
다정이 이른 말이 우지 마라 너속 탄다
지금의 은원업시 이별되니 슈히 불가. <풍아 136>

- (9) 십년을 상슈흐니 외락도 한가지라
의복 음식 슈품 제도 또 다시 알니 적어
엇지타 은원업은 한 이별이 니 심스름. <풍아 390>

위 두 작품 역시 단순히 이별을 읊은 작품은 아닐 것이다. 작품(8)은 이별하는 현장에서 울고 있는 여인을 남성화자가 달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철종과 자신을 이별하는 상황에 놓인 남녀로 각각 설정하여 유배시의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너 속 탄다'에서 철종이 이세보의 유배를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愍冤' 즉 간절히 원통한 일이 없기 때문에 머지 않아 석방을 약속한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시조 (9)에서 초장의 '십년을 상슈흐니'란 구절은 이세보가 경평군에 봉작되어 철종을 곁에서 모신 것을 말한다. 특히 그는 이세보는 수라를 감선하는 직책을 맡기도 하여 누구보다도 철종을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모든 애락을 함께 나누었던 것을 볼 때, 그와의 이별은 심사를 어지럽히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두 작품 모두 철종과의 이별에서 '隱怨'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철종과의 긴밀한 유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슬픔과 원통함이 없기 때문에 곧 석방되리라는 염원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 (10) 히도 가고 봄도 가고 삼호가 또 지나니
정녕이 오만 괴약 몇광음을 허송인고
엇지타 뜻아닌 한 이별이 상봉 느껴. <풍아 354>

35) 이상섭, 앞의 논문, p.203.

- (11) 폐부의 삭인 정성 임이 짐작 흐시기로
 쇼상강 건넌 후의 슈히 갈가 브랏더니
 저근듯 삼년되니 아도 나를 이즈신가. <풍아 166>

작품(10)은 애정시조로, (11)은 유배시조로 각각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동일한 의식세계하에 창작된 것임을 살필 수 있는데, 앞의 작품에서 초장의 '회도 가고 봄도 가고 삼하가 또 지나니'라는 구절은 이세보가 신지도에 삼년 동안 유배생활을 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고, '정녕이 오만 괴약'이란 간절히 기다리는 해배의 소식일 것이다. 종장에서는 뜻하지 않은 이별로 인해 임금과의 상봉이 늦어짐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즉 이 시조는 유배생활 중에 석방을 기다리는 마음을 애정을 빌어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즉 이 작품은 경험적 사실에서 우러나온 정서를 사실적으로 표출했다기보다는 정치적 소망의 발화로, 지금이라도 임금이 나를 다시 불러주신다면 믿고 따르겠다는 계산심리가 깔려 있는 것이다.³⁶⁾ 뒤의 작품은 유배지에서 애타는 심정을 보다 노골적으로 표현했을 뿐 작품의 주제는 앞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저근듯 삼년되니 아도 나를 이즈신가'라는 부분에서 임금의 무심함에 대한 자탄이 내비칠 뿐이다.

- (12) 늙지 안는 청산이요 다치안은 녹슈로다
 청산이 연분되고 녹슈가 근원되면
 아마도 인간의 이별이란 말리 업서. <풍아 98>

- (13) 삼각산 비현 곳의 한상슈 푸루렷다
 티산으로 중인 삼고 녹슈로 언약이라
 지금의 산무궁 슈부진흐니 네나디나. <풍아 275>

작품(12)는 남녀간의 이별없는 사랑을 '청산'과 '녹슈'의 변함없는 속성으로 말하고 있다. 이런 자연이 연분, 근원이 된다면 인간세상에 이별은 없을 것이라

36) 이세보의 유일한 가사작품 상사별곡에서도 이러한 일면을 찾을 수 있다.
 황미시절 써난이별 만학단풍 느꼈스니 / 구든언약 김혼정을 낸들어이 이젓술가
 / 숨호삼츄 지나가고 운산이 머릿쓰니/ ... / 상스일념 무한스는 저도나를 그리
 려니/ 인간의 일리만코 도물리 시괴런지...
 여기서의 '삼호삼츄'는 유배기간, '인간의 일', '도물리 시괴' 등은 유배를 오게 된 경위와 관련지어 생각한다면 상사별곡은 단순한 애정을 읊은 작품이 아니라 유배지에서 연군의 정을 읊은 작품임을 알 수 있다.

규정하면서 자연의 섭리 만큼 변치않는 사랑에 대한 염원을 표출하고 있다. 시조(13)에서 '삼각산'·'퇴산'·'한강수'·'녹수' 또한 모두 자연의 무궁함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남녀간의 연분과 언약도 이런 자연의 섭리 만큼 변함이 없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은 이세보의 궁극적인 연정의 대상이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군주였기 때문에, 임금과 신하의 굳은 신뢰를 염두에 두고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다짐하는 작품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이처럼 그가 일시적·쾌락적인 애정을 토로하기보다는 남녀간의 지속적인 화합이나 변치 않는 사랑을 회구하게 되었던 것은, 그것이 군주를 향한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애정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즉 이러한 작품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념적 당위를 밀바탕에 깔고 있었기 때문에 다분히 사회적이고 기교적인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이세보는 정치적 시련기에 가졌던 연군의 감정을 애정시조에 투영·표출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 나타난 이별과 상사는 철종을 가까이에서 모시지 못하는 상황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애정시조는 군주를 절대적으로 추종하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연군지사'의 전통을 표면적으로 계승하면서 작가가 발견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나 사랑의 절대성 등을 결합시켜 표현한 것이다. 또한 그의 애정시조에서 자탄·슬픔 등을 노출하고는 있지만, 과거 임과의 추억이나 사랑의 맹세 등을 강조하면서 '은원없는 이별', '슈히 불가', '상봉 느껴' 등 표현에서 그다지 좌절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현재의 고통을 미래의 환희로 바꿀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난과 좌절로 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³⁷⁾ 이것은 작가는 밑에 있고 임을 위에 둬으로써 의식적으로 수직적인 관계로 설정하여 지속적인 사랑을 바침으로써 현실의 고통을 감수하고자 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고통의 감수

37) 그의 유배시조에서도 형극의 처지를 모두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좌절이나 은둔·도피적인 체념보다는 충효사상을 일관되게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 역시 성은에 의한 해배와 충군에 대한 결심에서 현실의 고통을 감수하고자 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박길남, 「이세보의 유배시조 연구」(『한남어문학』13집, 한남대, 1994), pp.188-189.

는 기교적인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개인적인 경험이란 당대의 관습적으로 사용되었던 정치적 소망의 발화라 할 수 있다.

IV. 사대부 애정시조의 향방

시조문학사에서 이세보와 함께 사대부로서 애정시조를 창작한 작가로는 18세기 이정보(1693-1766)를 들 수 있다.³⁸⁾ 사대부라는 공통된 사회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애정시조에 있어서 이정보는 이세보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의 애정시조는 음탕하고 원색적인 성행위를 그대로 재현해 내거나 강렬한 성적 욕망을 표출하는 등 일회적·향락적·유희적 성향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이세보의 작품에서는 군주를 염두에 둔 상사나 이별의 작품을 통해 영원성·지속성 등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해당작가가 처한 당대의 정치상황 및 작가의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판서와 대제학까지 역임한 문벌 출신인 18세기 사대부 시조 작가 이정보의 애정시조를 함께 검토하여 사대부 애정시조가 이세보에게 와서 어떻게 변모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14) 간밤의 자고 간 그놈 아마도 못 이져라

瓦얏놈의 아들인지 존흠에 뽀너드시 沙工놈의 당녕인지 史於씨로 지르드시 두더 쥐녕식인지 곳곳지 뒤흔드시 平生에 처음이오 흥중이도 야릇지라.

前後에 나도 무던이 격저시되 춤 盟誓하지 간밤 그 놈은 춤아 못너저 흥노라. <71>³⁹⁾

(15) 님으란 淮陽金城 오리남기 되고 나는 三四月 출너출이 되야

그 남게 그 춤이 낙거미 나비 감듯 이리로 춘춘 저리로 춘춘 외오프

38) 이정보의 애정시조는 모두 12수로, 그는 이세보의 작품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애정시조 부문에서 사대부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작가였다. 진동혁, 『고시조문학론』(형설출판사, 1976), p.257.

39) 이정보 시조 작품은 모두 심재완 편저 『歷代時調全書』(세종문화사, 1972)에서 인용한 것임.

러 올이감아 열거져 틀어져 밋부터 쫓쫓지 조곰도 뵈틈업시 찬찬 구
뵈 나게 휘휘 감겨 晝夜 長常에 뒤트러져 감겨 이셔
冬 셋달 바람비 눈서리를 아모리 마즈들 풀닐 줄이 이시라. <733>

인용한 두 작품은 모두 농밀한 성행위를 제재로 창작한 것이다. 첫번째 작품은 간밤에 있었던 정사 장면을 회상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데, 초장의 '간밤의 자고 간 놈 아마도 못 잊어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파격적으로 시작된다. 중장에서는 여기서 더 발전시켜 '와얏놈', '사공놈', '두더지'를 등장시켜 그들의 속성을 들면서 노골적인 성행위를 재현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적나라한 표현은 중장에서 또 한번 충격을 주고 있는데, '전후에 나도 무던이 격겨시되'에서 여성 화자는 자신의 방탕한 과거를 서슴지 않고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초장의 독백을 반복함으로써 전날 정사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두번째 작품은 간절한 성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임과의 사랑을 '오리나무'와 '취녕쿨'에 비유하고 있는데, 초장에서는 상황을 설정하고 중장에서는 구체적인 행위를 묘사하고 있다. 물론 제시된 언어들이 성과 직접 관련이 되지는 않지만, '흔흔', '찬찬', '휘휘' 등의 부사나 '주야장상' 감겨 있겠다는 표현, 종장의 '풀닐 줄이 이시라' 등에서 강렬한 성적 욕망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위의 작품들은 이정보가 지었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나라하고 노골적인 상황들을 묘사해 내거나 남과의 성애에 대한 열렬한 지향을 담아내고 있다. 이정보가 사대부로서의 고매한 뜻과 정신, 그리고 참신한 경륜을 존중한 인물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처럼 음탕하고 원색적인 애정시조를 창작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자 '혁명적'이라 할 만하다.⁴⁰⁾

이정보는 강직하고 호탕한 성품의 소유자로, 군주에게도 직언을 꺼리지 않았으며 왜곡된 현실을 거침없이 풍자하기도 했다. 그의 이러한 대담하고 직설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정보는 큰 시련이나 좌절을 겪지 않고 판서와 대제학을 지내는 등 비교적 순탄하게 일생을 보냈던 것이다.⁴¹⁾ 이와 반대로 이세보

40) 박노준, 『李鼎輔 時調와 退行 속의 進境』(『고전문학연구』 제8집, 1993) p. 159-160.

41) 이정보의 정치적 생애에 관해서는 진동혁, 「이정보 연구」(『시조문학연구』, 정음사, 1980), pp.326-334. 구수영, 「이정보론」, (『고시조작가론』, 백산출판사, 1986), pp.324-330. 참조

는 왕족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도정권’이라는 파행적인 정치상황 속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던 것이다. 이런 정치적 생애는 다음과 같은 세계관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 (16) 大丈夫 功成身退 後에 林泉에 집을 짓고 萬卷書를 모아 두고
 중 흥여 밧갈니며 보르미 깃드리고 千金 駿馬 서여두고 絶代 佳人
 고틈 두고 金樽에 술을 노코 碧梧桐 거문고에 南風詩 노려호며 太平
 煙月에 醉호여 누어시니
 아마도 男兒의 名을 일은 이 켜인가 호노라. <829>

- (17) 이리히도 성은이요 저리히도 성덕이라
 요지건곤 안틸던들 박주산채 쉬울손가
 동즈야 술 부어라 완월장취. <풍아 413>

위의 작품은 둘다 풍류생활을 읊고 있는데, 앞의 이정보 작품에서는 그가 벼슬에서 물러난 뒤 자연에서 누리고 싶은 생활상을 나열하고 있다. 林泉에 지은 집, 만권서, 밧가는 종, 千金 駿馬, 절대가인, 벽오동으로 만든 거문고 등 최상의 흥취와 여유를 누리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려진 형상은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는 처사적 삶이 아니라 풍부한 물질적 기반 위에서 누리는 현세적 삶의 향수인 것이다. 이에 비해 이세보의 작품에 나타난 풍류는, ‘박주산채’를 곁들인 술자리에 만족하면서 그것마저도 모두 임금의 은혜와 덕으로 돌리고 있다.

여기서 정통 사대부라는 비슷한 사회적 기반을 가진 이 두 사람의 의식세계나 지향점이 얼마나 달랐는가를 알 수 있다. 이정보는 사대부로서의 고정된 사유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물질적 풍요와 그것을 근거로 한 삶을 만끽하고자 했으며, 이세보는 기존의 사대부적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중세적 질서 안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식세계의 차이를 애정시조와 관련지어 생각해 본다면 이정보는 개인적으로 강직하고 호탕한 성품을 가졌으며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향유하고자 했던 인물이다. 또한 그의 대담하고 직설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큰 시련이나 좌절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사설시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진솔하고 발달한 감정을 담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이세보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행과 시련을 많이 겪었지만, 이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거

나 폭로하지 못하고 조선조 사대부의 연군시조를 수용·창작함으로써 '충군'이라는 유교적 질서 안에서 자신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정보는 과감하게 사대부의 공식화된 사고에서 벗어나 음탕하고 적나라한 성행위를 다룬 작품을 창작하고 이를 당대 풍류 현장에서 연행함으로써 사대부 시조의 일대 전환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이세보의 애정시조는 슬픔의 과다 노출, 평이한 시어의 구사 등의 측면에서 19세기 대중시조의 정조와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⁴²⁾ 이것은 그가 정철·윤선도·장경세 등의 연주시사에서 볼 수 있는 문학적 관습을 차용해 연군을 드러내었지만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일상적·구체적 언어를 구사하고 시어를 사대부의 세련된 표현으로 가다듬지 않음으로써 19세기 대중시조, 특히 여창과 유사한 양상을 띠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그가 시조 창작에 있어서 '연군'에서 촉발되는 다양한 정서의 표출을 형식의 정제나 음악적 완성보다 우위에 두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V. 맺 음 말

이상과 같이 이세보 애정시조의 창작배경을 고찰하고 이와 함께 작가가 중점적으로 표출하고자 했던 의미와 지향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세보의 애정시조는 작가의 정치적 시련, 즉 유배와 밀접한 관련하에서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세보의 유배경위를 통해 볼 때 그는 당시 안동김씨를 비롯한 세도정권의 음모와 계책으로 '신지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유배지에서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깊은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 이세보는 이같은 암담한 생활 속에서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과 임금의 총애 등을 간절히 그리워했으며, 자신이 처한 현실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고 정계 복귀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철종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이세보의 애정시조는 철종에 대한 그리움, 변함없는 충성을 읊

42) 고미숙, 앞의 논문, p.234.

은 연군시조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세보는 유배지에서 임금에 대한 충군의 정은 흔히 남녀간의 연정을 빌어 표현하던 사대부의 문학적 관습을 계승하고, 자신이 유종의 현장에서 기생·악공들과 교유하면서 체득한 당대 애정시조의 경향을 수용하여 애정을 통해 연군을 표출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세도정권'이라는 파행적 정치상황에서 연군을 노골적으로 토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둘째, 이세보의 애정시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별과 상사는 철종을 측근에서 모시지 못하는 상황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자탄·슬픔 등의 정서는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소망을 위해 사용된 문학적 장치이기 때문에 임의 부재로 인한 심각한 좌절을 노출시키지 않고 오히려 사랑의 영원성·지속성 등을 희구함으로써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셋째, 사대부 애정시조 작가로서의 이세보의 위상은 18세기 작가 이정보와의 대비를 통해 그 성격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정보는 순조로운 정치생애와 현실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노골적으로 사랑과 성을 표출하는 당대의 작품 경향을 적극 수용할 수 있었던 데 반해, 이세보는 자신이 겪은 정치적 시련을 중세적 세계관 속에서 해소하기 위해 조선조 사대부의 연군시조를 계승·창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의 애정시조가 기존의 연주시사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지만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여성화자를 많이 사용하고, 일상적·구체적 시어를 구사하여 보다 세련된 표현으로 다듬지 않음으로써 19세기 애정시조의 주된 경향과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되었던 것이다.

본고에서의 논의는 이세보의 애정시조 가운데 상사나 이별을 읊은 작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이외에도 체험을 통한 여인과의 연정, 풍류객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들도 있다. 이세보 애정시조는 '연군'을 표출한 작품과 '연정'을 다룬 작품들을 함께 검토하여 그 상관관계와 변별성을 밝혀낼 때 보다 종합적이고 본질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